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임신/분만관리 교육프로그램이 임신관련지식, 신생아 양육지식 및 산후관리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김은희¹ · 이은주² · 김미조¹ · 박동영³ · 이성희²

¹경북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생, ²경북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³경산1대학 간호과 전임강사

Effects of an Educational Program of Pregnancy and Delivery on Pregnancy related Knowledge, Newborn Care Knowledge, and Postpartum Care Self-efficacy of Marriage Immigrant Women

Kim, Eun Hee¹ · Lee, Eunjoo² · Kim, Mi-Jo¹ · Park, Dong Young³ · Lee, Sung Hee²

¹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²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³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Kyungsan University College, Gyeongsan,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an educational program on pregnancy and delivery including pregnancy related knowledge, newborn care knowledge, and postpartum care self-efficacy for married immigrant women. **Method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quasi-experimental design was used. The educational program was developed by through an educational need assessment of married immigrant women and an expert opinion. The program was provided for 3 weeks, once a week for two hour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program using Kolmogorov-Smirnov, χ^2 -test, Fisher's exact test, and t-test. **Results:** The program significantly improved pregnancy related knowledge, newborn care knowledge, and postpartum care self-efficacy for the married immigrant women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compared to the women who did not.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educational program has an affirmative effect on pregnancy related knowledge, knowledge of newborn care, and postpartum care self-efficacy in these women. It is suggested, therefore, that the educational program be used to every married immigrant woman at the public health centers or delivery clinics help them to adjust to the childbearing and childrearing experience and this will ultimately enhance the quality of family life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Key words: Immigrant, Knowledge, Education, Child rearing, Self efficacy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급속한 세계화 속에서 국가 간의 경제적 차이를 활용하

는 것이 생활의 한 가지 방법으로 활용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는 남성들이 증가함에 따라 매년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다. 2007년 결혼남성 100명 중 8명이 외국여성과 결혼을 했고, 특히 농림어업 종사자의 경우는 전체결혼의 40%가 국제결혼이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2008).

주요어 : 이주, 지식, 산전간호, 양육, 자기효능감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Eunjoo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01 Dongin-dong, Jung-gu, Daegu 700-422, Korea
Tel: 82-53-420-4934 Fax: 82-53-421-2758 E-mail: jewelee@knu.ac.kr

투고일 : 2009년 11월 10일 심사위원회일 : 2009년 11월 13일 게재확정일 : 2010년 2월 2일

이로 인해 결혼을 목적으로 이주하는 여성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2008; Seol et al., 2005).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가정을 형성하고 사회의 건강한 한 구성원으로써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결혼을 목적으로 한 이주여성들은 대부분 필리핀, 베트남, 몽골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여성들로서(Kim, H. S., 2008; Kim, Kim, & Kwon, 2008),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한국으로의 결혼이주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이들은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에 있는 한국인 남성과 주로 결혼함으로써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Kim, H. S., 2008; Seol & Yoon, 2008)고 한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모국을 떠나 모국의 문화와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따르는 것임이 분명하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은 노동 목적의 이주여성들과는 달리 결혼과 동시에 임신, 분만, 그리고 산욕과 관련된 다양한 생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Jeong & Kim, 2000; Kim, H. J., 2008; Kim et al., 2008; Park, Park, & Kim, 2007). 임신과 분만은 정상적인 발달과업이기도 하지만 여성에게는 임신과 분만이 상당한 신체, 생리, 정신적인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태아와 임부 모두에게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는 사건(Jeong & Kim, 2000; Shin, Kim, & Kwon, 2000)이므로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들은 순수 한국여성들과 달리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배경이나 전통과 관습의 차이로 사회적·정서적 문제를 경험할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Kim et al., 2008; Kim & Koh, 2008), 결혼이주여성 중 23.6%에서 실질적인 의료보험의 혜택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Kim & Koh, 2008).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우리나라 여성보다 불임이나 낙태의 비율이 높으며(Seol et al., 2005), 임신 기간 중에 산전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여성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여성 건강 영역에서 가장 취약한 인구집단 중 하나이다(Kim, H. J., 2008; Kim, H. S., 2008; Kim et al., 2008; Kim & Koh, 2008).

그러나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간호학적 연구로는 결혼이주여성의 현황, 결혼적응, 배우자 지지, 부부갈등 및 학대, 우울, 삶의 질(Kim, H. J., 2008; Kim, H. S., 2008; Lee, 2003), 그리고 건강신념, 건강증진행위 및 건강상태에 관한 서술적 조사연구(Ahn, 2008; Kim et al., 2008; Kim &

Koh, 2008)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높은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임신, 분만, 그리고 양육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Cho, 1994; Kim, H. J., 2008)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임신/분만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모성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스스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몽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Chung et al., 2003). 또한 임신/분만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행복한 결혼 상태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한국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Seol & Yoon, 2008).

그러나 임신, 분만, 산욕, 그리고 어머니가 되는 역할은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생애 전 과정을 통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것(Lowdermilk & Perry, 2004)이므로 항상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기본 지식은 일회적인 정보 제공이나 압박한 시기의 교육보다는 장시간에 걸친 준비를 통하여 내재화되어야 효과적 수행이 가능하다(Park & Kim, 2000).

임신/분만에 대한 지식의 증가는 임신 합병증을 감소시키고 자가간호 능력을 향상시키므로(Park & Kim, 2000) 임부의 건강 및 태아의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신생아 양육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여성은 분만 후 모성역할 획득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신생아와 어머니와의 원만한 상호작용에 의한 육구가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 신생아의 신체, 심리, 사회적 발달은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Bang & Han, 1991). 그러므로 가임기 여성들이 임신 및 신생아 양육과 관련된 지식을 획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역할 수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자기효능감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행위를 수행하는 개인의 믿음과 자신감을 의미하는 것이다(Bandura, 1986). 즉 교육의 효과가 행위의 변화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의 증대가 필요하다(Lee, 2003; Shin et al., 2000).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임신, 분만, 산욕, 양육 등에 관련된 임신/분만관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결혼이주여성에게 제공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들의 임신 관련 지식, 신생아 양육지식 및 산후관리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임신관련 지식과 신생아 양육지식 및 이에 따른 산후관리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해 임신/분만

관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재를 수행한 후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함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임신/분만관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임신/분만관리 교육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의 임신 관련 지식, 신생아 양육지식, 그리고 산후관리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3. 용어 정의

1) 결혼이주여성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을 하여 한국 내에 거주하는 여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A시에 거주하는 가임기 외국여성들 중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고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여성을 의미한다.

2) 임신/분만관리 교육프로그램

결혼이주여성의 임신과 분만과 관련된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와 신생아의 효율적인 돌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Shin et al., 2000).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주 1회 120분씩 총 3회로 임신/분만과 관련된 내용과 신생아 양육에 관한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3) 임신관련 지식

결혼이주여성이 태아와 임신 중인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알고 있어야 할 지식(Chung et al., 2003)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Park과 Kim (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 초임부의 임신과 분만관련 지식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전문가 타당도를 거쳐 개발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4) 신생아 양육지식

신생아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모성 역할에 대한 지식(Kwak & Lee, 1996)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Shin 등 (2000)이 개발한 신생아 양육에 대한 지식정도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5) 산후관리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의 행동능력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어떤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한다(Bandura, 1986). 본 연구에서는 Shin 등(2000)이 개발한 산전·후 관리

와 신생아 양육에 대한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의 설계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임신/분만관리 교육프로그램이 임신관련 지식, 신생아 양육지식, 그리고 산후관리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 설계의 유사실험설계를 사용하였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표적 모집단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이며, 근접 모집단은 A시의 S복지관과 F복지관에서 한국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 중 가임기 여성이다. 복지관 선정은 실험효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각각 1개의 복지관을 선택하였으며, 연구자가 동전던지기를 하여 앞면이 먼저 나오는 복지관을 실험군으로 할당을 하였다. 자료 수집 시기 또한 실험효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대조군부터 먼저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복지관을 방문하는 결혼이주여성들 중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여성들로 하였다.

- 1)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복지관에 파견된 한국어 교육사로부터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료 판정을 받은 자
- 2) 건강한 가임기 결혼이주여성
- 3) 지금까지 산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자
- 4)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

연구 참여를 희망한 결혼이주여성이라도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으며 서면동의서에도 이를 명시하고, 설문에 대한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됨을 알려주었다. 대상자 수를 결정하기 위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중간 크기의 효과크기로 설정하고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 단측 독립 t검증에 필요한 표본 수가 각 군에 26명이었다. 그러나 연구의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어 최종적으로 실험군 16명, 대조군 20명을 선정하였다. 설문지 작성 누락으로 인해 대조군 3명이 탈락하였는데 탈락 사유는 이사(1명)와 감기(2명)였다. 따라서 최종 분석 대상은 실험군 16명과 대조군 17명이었다.

3. 연구 도구

1) 임신관련 지식

임신관련 지식 측정도구는 Park과 Kim (2000)이 초임부의 임신, 분만, 피임, 그리고 모성행위에 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20문항의 도구에서 피임과 모성행위에 관한 문항을 제거하고 본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맞추어 언어의 수준과 내용을 수정·보완한 14문항을 사용하였다. 수정된 도구는 간호학 교수 1인, 결혼이주여성의 분만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풍부한 대학병원 산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의 자문을 받아 내용타당도를 확립하였으며, 복지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한국어 교육사와 수차례 상담을 통해 언어의 수준을 조정하였다. 설문문항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Park과 Kim (2000)의 도구를 기반으로 하였지만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문항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문항의 90% 정도가 수정되었다. 설문 문항은 임신섭생에 관한 10 문항과 태아에 관한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아니다' 0점, '그렇다' 1점으로 0점에서 14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677$ 로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교육수준과 문화적 배경이 다양함으로써 임신과 분만에 관한 대상자들의 지식정도에 차이가 심하고 설문문항 수가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새로 개발된 도구는 신뢰도가 Cronbach's $\alpha=.60$ 까지도 가능하다는 연구를 결과(Nunnally, 1978)를 바탕으로 연구도구로 채택하였다.

2) 신생아 양육지식

Shin 등(2000)이 개발한 산후관리 지식측정 도구 중 신생아 양육에 관한 16 문항만을 추출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의 측정 방법은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모른다' 1점에서 '매우 잘 알고 있다' 4점으로, 점수 범위는 16점에서 64점인데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Shin 등(200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30$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02$ 이었다.

3) 산후관리 자기효능감

Shin 등(2000)이 개발한 산전·후 관리와 신생아 양육에 대한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총 15 문항으로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자신이 없다' 1점에서 '매우 자신이 있다' 4점으로 점수범위는 15점에서 60점이며,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Shin 등(200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8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

bach's $\alpha=.895$ 로 나타났다.

4. 연구 진행 절차

1) 교육요구도 조사

임신/분만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임신과 분만, 산욕기관리에 해당하는 주제인 1) 배란과 피임, 2) 임신섭생(식이조절, 운동, 일상생활과 유의점), 3) 산욕기간호(목욕, 성생활, 운동, 패티교환, 좌욕), 4) 분만(분만증상, 호흡법), 5) 신생아관리(목욕법, 제대관리, 기저귀관리), 6) 수유법(모유 및 분유수유), 7) 예방접종 등 7개의 영역으로 주제를 구분하고 이러한 영역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교육 요구도를 총 2회에 걸쳐 조사하였다.

1차 조사는 2007년 11월 2일 A시에 있는 K대학에서 실시하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사회복지프로그램에 참가한 중국인 4명, 일본인 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차 조사는 11월 14일 G복지회관에서 실시하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문화프로그램에 참석한 중국인 2명, 베트남 1명, 필리핀 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는 Likert 4점 척도(매우 알고 싶다, 알고 싶다, 관심 없다, 전혀 관심 없다)를 이용하였다. 조사결과 3점 이상의 높은 요구도를 보인 것은 임신섭생(일반생활), 산욕기 간호(분만후 자가관리), 신생아 양육, 그리고 수유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영역에 좀 더 중점을 두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 결혼이주여성 임신/분만관리 교육프로그램의 내용타당성검증

결혼이주여성들의 임신/분만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들을 통해 사전 요구도 조사를 실시한 뒤 문헌고찰(Bandura, 1986; Cho, Lee, & Lee, 1999; Lee, 2003; Shin et al., 2000)을 통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후 본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의 언어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쉬운 언어, 그림, 사진, 비디오, 모형, 직접수행, 그리고 반복학습방법 등으로 이해도와 학습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개발 후 내용타당성을 검증받기 위해 전공교수 2인과 종합병원 산부인과 전공의사 1인, 그리고 대학병원과 보건소에서 산모교육과 산모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간호사 1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보완하였다. 교육 자료에 사용되는 용어와 언어에 관한 부분은 복지관에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교사 3인과 충분한 토의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언어능력 정도에 맞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3) 결혼이주여성 임신/분만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과정

Bandura (1986)의 사회학습이론의 주요개념인 관찰학습 (observational learning), 대리학습(vicarious learning), 그리고 자기통제학습이론의 틀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Shin 등(2000)에서 제시한 산후교육과 Lee (2003)가 제시한 신생아 양육에 대한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결혼이주여성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1주에 2시간씩, 3주간 실시하였으며, 교육내용은 임신과정과 태아 성장· 발달, 산전· 후 자가간호, 신생아 양육 및 모유수유 등의 내용이다(Table 1).

1회기에서는 임신과 태아성장· 발달, 그리고 임신섭생(일반 생활)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임신에서는 임신징후에 대해 구성하였고, 태아성장· 발달은 개월에 따른 변화와 유의점으로 구성하였으며, 임신섭생(일반생활)에서는 임신 중 식이요법과 유의점, 휴식, 일상생활 시 유의점, 그리고 임신동안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야 할 징후로 구성하였다. 2회기는 산전· 후 자가간호로 목욕, 성생활, 효과적인 운동법(동영상, 모방학습), 패드교환, 회음부관리, 그리고 병원에 방문해야 할 주증상으로 구성하였다. 3회기는 신생아 양육과 수유법으로, 신생아 양육의 구체적 내용은 신생아의 신체적· 생리적 특성, 목욕과 체대 관리, 지저귀관리, 그리고 병원에 가야할 아기의 이상증상으로

구성되었다. 수유법에서는 모유수유 방법 및 유두관리(동영상), 분유수유 시 유의점과 젖병소독 방법, 그리고 트림시키기로 구성하였다.

5. 자료 수집 방법

총 자료 수집 기간은 2007년 12월 7일부터 2008년 4월 25일까지 이루어졌다. 먼저 각각 다른 시기에 S복지관과 F복지관을 방문하여 관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실험군은 프로그램 중재 1주 전에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분만 완전정복’이라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복지관의 게시판과 복도에 부착하여 대상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화하였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공지한 뒤,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여성들에 한해 먼저 서면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참여를 동의한 결혼이주여성 가정에 개별적으로 남편이나 시모에게 전화를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사전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3주간 주 1회 오전 10시부터 12까지 복지관 강의실

Table 1. Overview of the Educational Program on Pregnancy and Delivery

Session & topics	Level	Contents and learning activities	Methods
At admission	100 m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troducing and greetings of researcher and research assistants General overview of the program Sign the research participation agreement Snack and acquaintance time among participants 	Powerpoint presentation Discussion
1st session Pregnancy, and fetal growth development, diet and daily life during pregnancy	120 m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Signs and symptoms of pregnancy Fetal growth and development: development of embryo in uterine cavity to the end of gestational age Precautions by gestational age Precautions during pregnancy: diet, rest, activities, exercise, signs and symptoms which need a visit to an obstetrician Summary quiz 	Lecture (Powerpoint presentation) Discussion
2nd session Self care during antepartum and postpartum	120 m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Quiz on previous class Antepartum and postpartum self care: bathing, sexual activities, exercise (animation and demonstration), pad exchange, perineal care, signs and symptoms which need a visit to an obstetrician Summary and quiz 	Lecture (Powerpoint presentation, animation) Discussion
3rd session Feeding and rearing of newborn baby	120 m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Quiz on previous class Baby rearing: physical and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of newborn baby, bathing of baby, umbilical cord management, diaper exchange, signs and symptoms which need a visit to a pediatrician Feeding: breast feeding, nipple management (animation), bottle feeding technique and sterilization of bottle, burping Summary and quiz Wrap-up 	Lecture (Powerpoint presentation, animation, manikin [breast, newborn], bottle, milk, feeding bottle sterilizer) Discussion

임신/분만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을 모두 마친 후에는 다과를 제공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한 뒤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조군에게는 사전조사를 마친 후 본 연구에서 개발된 소책자를 배부하여 주었으며, 3주 뒤에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후조사 시에는 먼저 다과를 제공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설명하고 난 뒤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실험자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연구보조원 4명을 두어서 실시하였다. 연구보조원들은 동일한 4년제 간호대학 졸업생으로 병원발령 대기 중인 간호사들 중에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희망한 자들 중에서 선발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보조자에게 자료 수집 방법과 절차에 대해 2시간가량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연구자와 함께 복지관을 직접 방문하여 결혼이주여성에게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대해 훈련을 제공하였다. 이후 연구자는 연구보조자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연구보조자의 결과해석에서의 문제와 연구보조자들 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후 연구자는 이를 다시 교정한 후 연구보조자들이 다른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절차와 응답에 대한 해석이 일치한다고 판단할 때까지 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보조자간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한 뒤 본 조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설문문항에 대해 연구 대상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국어에 대한 이해능력이 높은 같은 국적의 다른 대상자가 설문문항을 모국어로 이야기하여 설문문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문항에 대한 대상자의 이해가 완전하다고 판단이 될 때 수행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4.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변수의 정규분포 검증을 위해 Kolmogorov-Smirnov 검정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 모든 종속변수가 정규분포를 하였다. 둘째,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임신관련 지식, 신생아 양육지식, 그리고 산후관리 자기효능감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빈도와 백분율, χ^2 -test, Fisher's exact test, 그리고 t-test로 분석하였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에게 제공된 임신/분만관리 교육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임신관련 지식, 신생아 양육 지식, 그리고 산후관리 자기효능감에 대한 중재 후 집단 간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넷째,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

1. 두 집단 간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Table 2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실험군 16명, 대조군 17명인 결혼이주여성으로 총 33명이다. 연령을 보면 실험군에서는 20대 11명, 30대 5명이었고, 대조군은 20대 12명, 30대 5명으로 구성되었다. 국적에서는 중국(33.3%)과 베트남(42.4%)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대상자들이 한국에 거주한 기간은 24개월 미만이 전체의 72.7% (24명)이고 37개월 이상도 18.2% (6명)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분포에 차이가 없었다. 학력은 두 군 모두 고졸(36.4%)이 각각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졸 이하는 실험군 6명, 대조군 8명이었으며, 전문대졸 이상은 실험군 4명, 대조군 3명으로 구성되었다. 전 대상자의 97.0% (32명)에서 현재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다. 월수입은 201만 원 이상이 실험군 4명, 대조군 9명으로 나타났고, 100만 원 이하도 실험군 1명, 대조군 3명으로 나타났다. 이상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대상자들의 모든 특성에서 동질한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두 집단 간의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중재 전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증은 Table 3과 같다. 임신관련 지식에서 실험군은 평균 8.56 (± 2.48), 대조군은 평균은 8.29 (± 2.73)로 두 그룹 모두 중간정도의 점수로 그룹 간 차이가 없었다($t=0.30$, $p=.770$). 신생아 양육지식은 실험군에서 평균 38.25 (± 7.69), 대조군에서 평균 40.12 (± 12.05)로 두 그룹 모두 중간정도의 점수로 그룹 간 차이가 없었다($t=-0.53$, $p=.602$). 그리고 산후관리 자기효능감도 실험군에서 평균 42.38 (± 7.38), 대조군에서 평균 41.24 (± 12.51)로 두 그룹 간 차이가 없었다($t=0.32$, $p=.751$). 따라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에서도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결혼이주여성 임신/분만관리 교육프로그램 효과검증

1) 중재 후 두 집단 간의 차이 검증

중재 후 두 집단 간의 효과를 비교해 본 결과 임신관련 지식은 실험군에서 평균 11.00 (± 1.21)으로 높은 수준이었고, 대조군은 8.94 (± 2.38)로 여전히 중간정도로 나타나 실험군이 대

Table 2.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 between Groups

(N=33)

Demographics	Categories	Exp. (n=16)	Cont. (n=17)	Total (n=33)	χ^2 or Fisher's exact test	<i>p</i>
		n (%)	n (%)	n (%)		
Age (yr)	≤20-24	6 (37.5)	5 (29.4)	11 (33.3)	0.394 [†]	.821
	25-29	5 (31.3)	7 (41.2)	12 (36.4)		
	≥30	5 (31.3)	5 (29.4)	10 (30.3)		
Nationality	China	7 (43.8)	4 (23.5)	11 (33.3)	3.13	.438
	Vietnam	6 (37.5)	8 (47.1)	14 (42.4)		
	Philippines	2 (12.5)	1 (5.9)	3 (9.1)		
	North Asia (Mongolia, Russian Federation, Uzbekistan)	1 (6.3)	4 (23.5)	5 (15.2)		
Stay in Korea (months)	≤ 12	8 (50.0)	6 (35.3)	14 (42.4)	1.75	.667
	13-24	4 (25.0)	6 (35.3)	10 (30.3)		
	25-36	2 (12.5)	1 (5.9)	3 (9.1)		
	≥37	2 (12.5)	4 (23.5)	6 (18.2)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6 (37.5)	8 (47.1)	14 (42.4)	0.809	.946
	High school	6 (37.5)	6 (35.3)	12 (36.4)		
	≥College	4 (25.0)	3 (17.6)	7 (21.2)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1 (6.3)	3 (17.6)	4 (12.1)	4.95	.077
	101-200	11 (68.8)	5 (29.4)	16 (48.5)		
	≥201	4 (25.0)	9 (52.9)	13 (39.4)		

[†]Chi-square 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3. Homogeneity Tests for Dependent Variables between Groups (N=33)

Variables	Exp. (n=16)	Cont. (n=17)	<i>t</i>	<i>p</i>
	M±SD	M±SD		
Pregnancy related knowledge	8.56±2.48	8.29±2.73	0.30	.770
Knowledge about newborn care	38.25±7.69	40.12±12.05	-0.53	.602
Postpartum self-efficacy	42.38±7.38	41.24±12.51	0.32	.751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3.15, p=.004$). 신생아 양육지식에서는 실험군의 평균이 57.88 (± 4.94)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대조군은 44.59 (± 10.27)로 중간정도로 나타나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4.91, p<.001$). 그리고 산후관리 자기효능감에서도 실험군의 평균은 52.31 (± 4.87)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대조군은 42.41 (± 12.09)로 여전히 중간정도의 점수를 나타내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산후관리 자기효능감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3.12, p=.005$). 따라서 중재 후 두 집단 간의 차이 비교에서는 측정변수 모두 실험군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중재에 의한 효과를 입증할 수 있었다(Table 4).

Table 4. Groups Comparison of Differences of Pregnancy related knowledge, Knowledge of Newborn Care, and Postpartum Self-Efficacy between Groups (N=33)

Variables	Exp. (n=16)	Cont. (n=17)	<i>t</i>	<i>p</i>
	M±SD	M±SD		
Pregnancy related knowledge	11.00±1.21	8.94±2.38	3.15	.004
Knowledge about newborn care	57.88±4.94	44.59±10.27	4.91	<.001
Postpartum self-efficacy	52.31±4.87	42.41±12.09	3.12	.005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논 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는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초보적 인식 수준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정당한 시민으로서(Seol & Yoon, 2008) 가정을 꾸리고 우리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가야 하며 이들의 자녀들은 현재와 미래의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주인공이 된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임신, 분만, 양육으로 인한 결과가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임신/분만관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교육

을 제공하는 것은 간호사들이 시급히 수행해야 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문화적·교육적 특성과 요구도에 맞추어 임신/분만관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제공한 뒤 그 효과를 임신관련 지식 변화, 신생아 양육지식 변화, 그리고 산후관리 자기효능감 변화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베트남 여성이 42.4%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33.3%로 나타났다. 이는 Kim 등(2008)의 연구에서 베트남이 43.8%, 중국이 20.5%, 그리고 필리핀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였다. 또한 통계청의 2008년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 중 중국(46.9%)과 베트남(29.4%) 여성이 가장 많으며, 특히 베트남은 2000년도에 비해 2008년도에 108배나 증가하였다는 보고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9). 대상자의 학력을 보면 중졸이하의 저학력을 갖고 있는 대상자가 42.4%, 고졸이 36.4%로 나타이며, Kim 등(2008)의 연구에서도 중졸 이하가 38.3%, 고졸이 49.3%, 나타났음을 볼 때 최근 베트남, 필리핀 등의 동남아 저개발국가에서 이주하는 여성들이 많아짐에 따라 학력이 저하되는 경향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나(Ahn, 2008; Kim et al., 2008; Kim & Koh, 2008) 아직까지 결혼이주여성들의 임신/분만과 관련되어 수행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임신/분만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임신관련 지식이 향상되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교육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임신관련 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t=3.15, p=.004$). 본 연구 대상자가 가임기 여성이고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주로 임신부를 대상으로 산전간호 교육을 제공한 것들이어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Park과 Lee(2002)의 연구에서도 임신부들에게 임신과 분만에 대한 비디오를 보여주고 질문에 응답한 뒤 임신과 분만에 대한 지식정도를 조사한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지식정도가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Jung(2003)의 연구는 초산모들에게 산전간호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 초산모들의 산전간호에 대한 지식이 증가되었을 뿐 아니라 불안이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고, 통증인지 정도도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Park과 Kim(2000) 연구에서는 산모의 임신, 분만 등에 관한 지식이 높을수록 산전 자가간호 행위수준이 높다고 하였으므로, 가임기 여성들에게 임신과 분만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임신부들의 자가간호행위를 증가시켜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건

강을 유지하고 각종 합병증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태아에게는 조산, 사산, 신생아 사망 등의 문제를 감소시켜 신생아 건강관리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신생아 양육지식도 임신/분만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이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4.91, p<.001$). Kwak과 Lee(1996)의 연구에서 분만을 위해 내원한 산모들에게 산모교육을 제공한 결과 신생아 양육에 대한 지식이 교육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고, Cho 등(1999)의 연구에서도 신생아 돌보기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산모가 받지 않은 산모보다 아기돌보기 자신감과 양육태도가 긍정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Kim(2006)의 연구도 산전간호프로그램이 어머니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증가시키고, 모아상호작용 및 영아성장애까지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줌으로써 영아의 성장과 발달증진에까지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간호사에 의해 제공된 교육프로그램이 임신부나 산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Chang과 Song(2000)의 연구에서는 신생아관리에 대한 비디오 상영을 가정간호서비스를 통해 분만 후 5-6일째 제공한 후 그 결과를 분만 후 1달에 재방문하여 측정한 결과 신생아의 양육능력이 유의하게 상승하지 않은 것을 보고하였다. 이는 교육을 제공한 시기와 측정 간의 간격이 너무 커서 교육의 효과가 감소되었거나, 분만 후 5-6일째는 산모가 분만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상태라 교육의 효과가 적절하지 못했을 것이라 사료된다.

모성역할은 여성으로서 본능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극-반응의 복합적인 사회적·인지적 과정이므로(Bandura, 1986; Chang & Song, 2000), 임신부나 산육부에 대한 간호사의 교육은 모아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i & Kim, 2002). 즉 산모의 신생아 양육에 대한 지식이 증대되어 양육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산모는 신생아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어 모아상호작용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Chang & Song, 2000; Kim, 2006).

임신/분만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두 집단 사이의 산후관리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임신/분만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산후관리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3.12, p=.005$). Lee(2003)의 연구에서도 초산모에게 산육기 비디오 교육을 실시한 결과 산육기간호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증가되었고, 다른 선행연구들(Kim, 2005; Kwak & Lee, 1996; Lee, 2003; Shin et al., 2000)에서도 초산모에게 소책자, 구두교육, 시범교육

등을 제공한 후 자기효능감이 증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즉 간호사에 의해 수행되는 교육은 산모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임신은 여성에게 신체적, 정신적 다양한 변화를 초래하여 임부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역할에 대한 적응을 요구한다. 따라서 여성들이 임신, 분만과 관련된 변화에 잘 적응하고 정상적으로 건강한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임신과 분만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야 한다(Kwak & Lee, 1996; Shin et al., 2000).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임신, 분만, 양육을 경험해야 하지만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Kim et al., 2008; Kim & Koh, 2008), 낮은 교육수준과 언어적 취약성으로 임신이나 분만,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간호사의 중재가 더욱 필요하다.

최근까지의 임신부나 산모를 위해 제공된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교육 횟수가 1-2회인 경우가 다수이고(Choi, 2001; Chung et al., 2003; Kwak & Lee, 1996; Shin et al., 2000), 교육 도구에서는 소책자나 유인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Choi, 2001; Kwak & Lee, 1996; Shin et al., 2000), 교육 시기는 분만 후 퇴원 당일이거나 일주일 이내에 10-30분 정도 교육을 하는 경우가 다수이었다(Chang & Song, 2000; Shin et al., 2000). 그러나 짧은 교육시간과 적은 교육 횟수는 특히 결혼이주여성들과 같이 의사소통능력이 저하되어 있거나 교육수준이 낮은 그룹에게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임신과 신생아양육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모두 다루기에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에 결혼이주여성들의 언어적 수준과 지식수준을 감안하여 교육 횟수도 증가시키고 동영상자료와 모형, 그림 등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였으며, 간단한 퀴즈나 모방 학습을 통해 대상자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언어적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sister 제도를 만들어 우리나라에 먼저 이주한 여성이 새로운 이주여성을 이끌어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들 간의 유대와 교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상자의 교육 요구도 조사를 먼저 수행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프로그램의 참여에 대한 동기화를 강화시킬 수 있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임신, 분만, 양육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한 연구가 극히 부족한 것을 감안할 때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임신과 분만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것은 본 연구의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추후 결혼이주여성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감소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들의 가장 당면한 문제인 임신과 분만, 자녀양육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따라서 간호사는 이러한 결혼이주여성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이 당면한 것임을 인식시키고 이들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교육을 제공한다면 결혼이주여성들은 새로운 나라에서 자신들이 경험해야 할 다양한 신체적·정서적 변화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개 도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임신/분만관리 교육프로그램을 대상자들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별화시켜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대상자별 어떤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교육 횟수와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대상자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대상자 수집을 위한 새로운 전략의 개발을 제안하는 바이다.

결 론

본 연구는 임신/분만관리 교육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들의 임신관련 지식, 신생아 양육지식 및 산후관리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된 비동등성 대조군의 유사실험 연구이다. 임신/분만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임신관련 지식, 신생아 양육지식, 그리고 산후관리 자기효능감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임신/분만관리 교육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임신관련 지식, 신생아 양육지식, 그리고 산후관리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내용을 제안한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임신/분만관리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보건소나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그 효과를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여성뿐 아니라 배우자까지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프로그램과 자녀양육이나 부모됨 교육을 연계시키

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결혼이주여성의 임신/분만, 신생아 양육에 대한 지식 증가와 산후관리 자기효능감의 증진 효과를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Ahn, Y. H. (2008). Health status and health behavior of immigrant women married to Korean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2, 18-26.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ng, K. S., & Han, K. J. (1991). A study on the change of primipara's mother-infant interaction by infant's monthly ag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1, 150-167.
- Chang, S. B., & Song, J. E. (2000). Effects of home nursing care-assisted neonate video instruction on stress care ability for neonates in primipara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6, 54-66.
- Cho, K. J., Lee, K. J., & Lee, O. J. (1999). The effect of the educational program on caring-confidence and rearing attitude in mothers with newborns. *The Korean Journal of Child Health Nursing*, 5, 84-96.
- Cho, Y. S. (1994). A phenomenologic study on the stresses and the experiences of pregnant women and postpartum mothers who had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4, 432-447.
- Choi, J. H. (2001). *The effect of postpartum care educational program on the knowledge and self-efficacy of postpartum care in primipara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Busan.
- Choi, S. Y., & Kim, Y. H. (2002). The effect of infant massage on mother-infant play interac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2, 823-831.
- Chung, H. K., Kim, K. H., Yeoum, S. G., Song, M. S., Ahn, O. H., & Lee, J. W. (2003). Family support, intention of pregnancy and antenatal self-care of pregnant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9, 319-326.
- Jeong, G. H., & Kim, S. J. (2000). Differences of women's perception of fatigue according to the period of pregnanc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0, 731-740.
- Jung, M. S. (2003). Effect of childbirth education on knowledge, anxiety, labor pain and self-cooperation in primipara and husbands.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7, 99-114.
- Kim, H. J. (2008). A study of spousal support, the demand for health education, and quality of life for life for married female immigra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4, 5-11.
- Kim, H. K. (2005). Effect of self-efficacy promoting newborn care education program confidence and behavior about newborn care of primiparas in the postpartum care cent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Busan University, Busan.
- Kim, H. S. (2008).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4, 248-256.
- Kim, M. J., Kim, T. I., & Kwon, Y. J. (2008). A study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contraception in married immigrant.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4, 323-332.
- Kim, M. Y., & Koh, H. J. (2008). A study about intermarriage foreign wives: Prenatal education needs, health belief and prenatal care compliance. *Keimyung Journal of Nursing Science*, 12, 83-96.
- Kim, T. I. (2006). Development and test of effectiveness of a prenatal role education program. *The Korean Journal of Child Health Nursing*, 12, 104-114.
-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9, June, 3). *Bureau of International Marriage Statistics*. Retrieved July 16, 2009, from <http://www.index.go.kr>
- Kwak, Y. H., & Lee, M. L. (1996). The effects of education on knowledge and confidence in postpartal self-care and newborn baby car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 246-256.
- Lee, J. S. (2003). *Effect of postpartum video education on the knowledge and self-efficacy of postpartum care in primipara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Busan.
- Lowdermilk, D. L., & Perry, S. E. (2004). *Maternity & Women's Health Care* (8th ed.). St. Louis, MO: Mosby.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2008, August). *Before international marriage, you should know this. Manual for instructors providing information on international marriage*. (Issue Brief No. 11-1382 000-000007-01). Seoul: Author.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NY: McGraw-Hill.
- Park, C. H., & Lee, C. U. (2002). Effect of Antenatal Education on Pregnant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8, 34-54.
- Park, J. S., Park, O. I., & Kim, J. H. (2007). A study on family conflict and life satisfaction for immigrant wom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5(6), 59-70.
- Park, M. S., & Kim, H. W. (2000). A study on primigravida's antenatal self-care behavior and maternal knowledg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6, 153-165.
- Seol, D., Kim, Y., Kim H. M., Yoon, H. S., Lee, H., Yim., K. T., et al. (2005). *Foreign wives' life in Korea: Focusing on the policy of welfare and health*.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Seol, D. H., & Yoon, H. S. (2008). Socioeconomic adaptation and welfare policy for immigrant women on marriage. *The Korean Social Security Association*, 24, 109-133.
- Shin, H. S., Kim, S. H., & Kwon, S. H. (2000). Effects of education on primiparas' postpartal car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6, 34-45.